■ 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39-561.
http://doi.org/10.17948/kcs.2020..89.539

현대국어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과 사용 양상의 변화*

송인성(宋仁成)**

목 차

1. 서론
2. 연구 자료
3.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 과정
4.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보-’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발화 목적과 발화 상황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호출어는 호칭어, 지칭어와 함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으로 현대국어에서 다양한 언어 형식으로 사용된다. 호출어 ‘이+보-’류는 ‘여+보-’류가 ‘여기(를) 보-’에서 발달한 것과 같이 ‘이로 가리키는 대상을 보다’의 의미를 지닌 ‘이(를) 보-’에서 발달하여 현재 축약형인 ‘이봐’, ‘이봐요’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변화형인 ‘이것/거 보-’도 호출어로 쓰이고 있다. 이 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4756).
이 연구는 2020년 우리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저자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김혜령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상명대 계당교양교육원 강사.

형태는 청자 대우법의 어미의 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호출어 '이+보-'류는 요청, 제안, 질문, 명령, 진술, 걱정, 문제 제기, 경고 등의 여러 발화 목적 및 상황에서 쓰이는데, 근래로 올수록 문제 제기, 경고 등의 상황에서 사용이 증가한다. 반면에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는 상황에서의 사용은 1970년-1980년대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현상을 통해, 호출어 '이+보-'류에 문제 제기나 경고 등의 의미와 기능이 이전보다 강화되고 요청, 제안, 질문 등의 상황에서 사용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보-'류의 사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호출어 '저기(요)'가 요청, 제안, 질문 등의 발화 목적 및 상황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제어: 구어 자료, 이것 봐, 이것 봐요, 이봐, 이봐요, 저기, 저기요, 현대국어, 호출어, 호칭어.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보-'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국어 내에서 '이+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를 밝히는 것에 있다.[1]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양상을 발화 목적과 발화 상황 측면에서 파악하여 현대국어에서 쓰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2]

현대국어에서 '이봐, 이봐요, 이보세요'는 화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화자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을 호출어라고 하는데 호출어는 화자가 특정 담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관심과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 화자는 호출어를 사용하여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청자에게 자신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3]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는 화

1) 여기서 '이+보-'류는 '이봐, 이보세요' 등과 같은 '이보-'류와 '이것/거 봐, 이것/거 보세요' 등과 같은 '이것/거 보-'류 형태를 모두 칭하는 말이다.

2) 여기서 언급한 발화 목적과 발화 상황은 화행 이론에서 제시한 언표내적 행위와 유사하다. 이는 제안, 요청, 명령, 경고 등과 같이 발화 수행 시 나타나는 행위이다. 화행 이론은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1962;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와 Searle, John R.,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이건원 역, 『언어 행위』, 한신문화사, 1987 참조.

3) 호출어는 화자가 주위 있는 특정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로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

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언어 형식으로 실현되는데 대체로 (A)와 같이 나타난다.

(A) ㄱ. 여보십시오, 여보시오, 여보게, 여봐, 여봐요, 여보세요, 여보 등
ㄴ. 이보십시오, 이보시오, 이보게, 이봐, 이봐요, 이보세요, 이보 등, 이것/거 보십시오, 이것/거 보시오, 이것/거 보세요, 이것/거 봐, 이것/거 봐요 등
ㄷ. 여, 여기, 여기요
ㄹ. 저, 저기, 저기요
ㅁ. 어이, 야,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등

(A)와 같이 호출어로 사용되는 다수의 표현들은 호출어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가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어휘에서 의미와 기능이 변하여 새롭게 호출어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최근 호출어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여/여기/여기요’, ‘저/저기/저기요’ 등은 대명사나 지시사에서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호출어는 의미, 기능의 변화와 함께 형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Aㄱ)의 호출어 ‘여보-’류는 ‘여기(를) 보-’와 같은 구문에서 형태적인 변화를 거치며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이+보-’류가 어떠한 변화와 발달 과정을 거치고 현재 호출어로 사용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출어 ‘이+보-’류는 여러 발화 목적과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데, 예전과 달리 근래로 올수록 ‘이+보-’류가 사용되는 목적과 상황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제안(Bㄱ, ㄴ) 등을 하기 위한 것보다 문제 제기, 경고(Bㄷ, ㄹ)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을 한다. 이와 유사하게 담화표지는 ‘어’, ‘네/예’, ‘그’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주의와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된다. 담화상에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과정의 하나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측면에서 호출어와 담화표지는 유사한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호출어는 주변에 있는 특정 인물을 직접 불러서 자신의 담화공간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담화표지는 화자가 특정 혹은 다수 사람에게 자신의 발화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거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차이가 있다.

4) 홍윤표,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2009, 352면 참조.

(B) [요청, 제안]
ㄱ. 이거 봐 그러지 말고 말이야. 내 엿은 얼마든지 줄 테니 주전자를 날 줘. 〈1941_영화, 천사〉
ㄴ. 저 이봐 주인장. 우리 술만 자꾸자꾸 들 게 아니라 이번에 내기 장기 한 판 두면 어때 해? 〈1968_라디오드라마, 향토〉

[문제 제기, 경고]
ㄷ. 아니 이거 보슈 아 여자를 왜 쳐! 어? 〈1975_영화, 영자〉
ㄹ. 이봐 이팀장! 당신 무슨 일을 요따구로 하는 거야 응? 〈2014_TV드라마, 가족2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현대국어에서 호출어 '이+보-'류가 실현되는 발화의 목적과 담화 상황을 계량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이+보-'류가 발화 목적과 상황에 따라 어떠한 사용 변화를 보이고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호출어는 호칭어, 지칭어 등과 함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 표현으로, 청자 대우법과 같은 문법적 특성이 작용하기도 하고 공손성 실현의 측면에서 화자의 담화 전략도 드러난다. 호출어 및 호칭어 등의 국어 부름말은 국어 예절을 담은 화법과 관련된 표현이어서 국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부름말의 유형이나 용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5] 그런데 이와 관련된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호칭어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었고, 호출어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호출어 '이+보-'류를 대상으로 하여 '이+보-'류의 발달 과정과 발화 목적 및 상황의 측면에서 사용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

2. 연구 자료

'이+보-'류의 발달 과정과 사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어 자료는 고려대 구어 말

5)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137호, 한국어문학회, 2017, 227면 참조.

뭉치: 20세기 전기, 후기 자료와 21세기 TV 드라마 전사 자료이다.[6] 이 자료들은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양방향 비격식 대화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보-'류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연도별 자료의 크기와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도별 구어 자료의 정보와 크기

연도	자료	어절
1930년대	유성기 음반(54편), 김복진 동화 구연(10편), 조선어 독본, 영화(4편)	49,506
1940년대	영화(7편)	16,171
1950년대	영화(10편)	39,634
1960년대	영화(5편), 라디오 드라마(3편), 만화(1편)	56,330
1970년대	영화(5편), TV 드라마(2편), 만화(3편)	42,435
1980년대	영화(5편), TV 드라마(4편), 만화(3편)	57,908
1990년대	영화(5편), TV 드라마(4편), 만화(1편)	53,251
2000년대	TV 드라마(5편)	110,654
2010년대	TV 드라마(4편)	104,471
총합	-	530,360

고려대 구어 말뭉치 자료는 20세기 전기(1930년-1940년대)와 후기(1950년-1990년대)의 음성과 영상 자료를 구어 유형별로 수집하여 구축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려대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 대화의 주고받음이 나타나는 유성기 음반, 동화 구연, TV 및 라디오 드라마, 만화, 영화 등과 같은 자료를 선별하였다. 21세기 TV 드라마 전사 자료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드라마를 전사한 자료로,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잘 드러나고 남녀노소 화자가 모두 등장하는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이 20세기와 21세기 자료의 크기는 전체 53만여 어절이다. 드라마 및 영화의 제목은 마지막 장에 있는 〈목록〉에 제시하였다.

6) TV 드라마 전사 자료는 촬영 전에 만들어진 대본 자료가 아니라 방송된 드라마 내용을 직접 듣고 전사한 자료이다.

3.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 과정

이 장에서는 호출어 '이+보-'류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보-'류는 현대국어에서 '이봐', '이봐요'와 같은 형태가 주로 쓰이는데 '이+보-'에 결합하는 청자대우법 어미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즉, 이+보-'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총 7개가 등재되어 청자대우법 어미에 따라 '이보십시오', '이보시오', '이보', '이보게', '이봐', '이봐요'와 같이 나타난다. 이 단어들은 모두 청자대우법 화계의 차이만 존재할 뿐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라는 공통된 의미와 기능을 지닌다.

현대국어에서 '이+보-'류와 유사한 형태와 의미로 실현되는 말에는 '여+보-'류와 '저+보-'류가 있다. 이 말들은 형태적으로 '여, 이, 저'라는 말에 '보-'가 결합한 구조를 동일하게 지닌다. 실질적인 쓰임 여부를 떠나 〈표 2〉와 같이 사전에는 청자 대우법의 여러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단어에 따라서 결합하는 양상의 차이가 있다. (C)는 사전에서 제시된 각 표현의 의미로, 세 표현은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화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

〈표 2〉 청자 대우법에 따른 '여보-, 이보-, 저보-'의 실현 양상

	여	이	저
-십시오	여보십시오	이보십시오	저보십시오
-시오	여보시오	이보시오	저보시오
-오	여보	이보	×
-게	여보게	이보게	저보게
-아라	여봐라	×	×
-아	여봐	이봐	×
-아요	여봐요	이봐요	저봐요
-세요	여보세요	이보세요	저보세요

(C)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의미

ㄱ. '여보-'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ㄴ. '이보-'류 듣는 이를 부를 때 쓰는 말.

ㄷ. '저보-'류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

이 가운데 '여+보-'계열의 말은 19세기 문헌 자료에 처음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정확한 어원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여보'는 '여기(를) 보오'에서 발달한 말로 본다. '여보'가 등장하던 시기의 '여기'는 '여긔'의 형태를 지녔는데, '여'가 방언에 쓰이는 여러 형태들을 보았을 때 '여긔'가 '역'으로 축약되고 '역'이 다시 '여'로 변화하고 여기에 동사 어간 '보-'가 결합하여 '여보'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7] 이 '여보-'류는 20세기 초 문헌 자료와 구어 자료에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며 화자와 청자의 면대면 상황에서 호출어로 활발한 쓰임이 나타난다.[8]

'저+보-'류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문헌 자료나 구어 자료에서 호출어로 쓰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인상적인 판단에도 현재 '저봐요' 정도가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표현들은 매우 낯설게 느껴진다. '저+보-'류 말의 형성과 발달에 대하여 기존에 언급된 바를 찾기 어려웠는데, '여+보-'계열의 말이나 '이+보-'계열의 말이 호출어로 자주 사용되기에 이에 형태적 유사성에 유추되어 '저+보-'류도 '저기/저쪽에 계신 분 봐주세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여+보-'류가 '여긔(를) 보오'에서 발달한 것처럼 '이+보-'류도 지시 대명사 '이'와 동사 어간 '보-'가 결합한 '이+보-' 구성에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보-'류가 '여기(를) 보-'에서 줄어든 것과 동일하게 '이+보-'류도 '이(를) 보-'에서 줄어든 말로 여겨진다. '이+보-'류 중에서 '이봐'는 유일하게 사전에 어원 정보가 있는데 '이바'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 분석 정보도 '이+보-+-아'로 사전에 제시되어 있다.

홍윤표에서는 '이바'가 대부분 백화문을 번역한 문헌에 출현하는데 '你來'의 '너 이리 와라'의 의미를 지닌 번역어로 항상 아랫사람에게만 쓰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 '이바'는 '보아'의 축약형인 '봐'에 유추되어 '이봐'로 변화하였고, '이바'로부터 '이봐요', '이보세요' 등과 같은 형태도 생겨난

7) 홍윤표, 앞의 책, 352면 참조.
8) 여기서 언급한 문헌 자료는 20세기 신소설 통합 자료이다. 신소설 통합 자료는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고문헌 말뭉치로 48만 5천여 어절이다. 구어 자료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이다.

것으로 보았다. (D)는 중세국어 자료에서 '이바'가 실현된 사례이다.[9]

(D) ㄱ. 이바 네 닷 돈 덜어라 말오 네 고디시근 갑슬 니르면. 〈1517번역노걸대, 하:22b〉
ㄴ. 이바 내 너ᄃᆞ려 ᄀᆞᄅᆞ쵸마. 〈1517번역박통사, 상:10a〉
ㄷ. 이바 밥 앗기디 말오 ᄒᆞᄅᆞ 세 번식 저희 밥 주어. 〈1517번역박통사, 상:10a〉

현재 호출어로 사용되는 '이보-'류의 말은 '이(를)+보-+-아' 구성에서 '이바'를 거치며 의미, 기능의 변화와 함께 형태적인 축소 및 생략을 겪고 형성된 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 형태의 축소와 생략 현상은 담화에서 전략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문법화를 촉진하는 기제가 되고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서 자주 발견된다.[10]

대표적으로 Rhee에서는 '그(러)니까', '그러게', '글쎄'가 동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로의 발달 과정을 제시하면서 원형에서 형태가 축소되고 생략되는 현상을 제시하였다.[11]

(E) ㄱ. 그러하-니 ≫ 그러하-니까 ≫ 그러니까 ≫ 그(러)니까
ㄴ. 그러하-기-에 ≫ 그러하-기에 ≫ 그러기에 ≫ 그러게
ㄷ. 그러하-ㄹ-쌔-에 ≫ 그러하-ㄹ씨 ≫ 그럴쌔 ≫ 글쎄

송인성에서는 자유발화 말뭉치(서울코퍼스)를 이용하여 부사 기원 담화표

9) 홍윤표, 앞의 책, 361-362면 참조.
10) Bybee, Joan. L., William P. and Revere D. P.,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구현정・이성하,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8권 1호, 담화와 인지학회, 2001, 1-19면; Rhee, Seongha, "On the emergence of Korean markers of agreement", *Journal of Pragmatics*, Vol.83, 2015, pp.10-26; 송인성,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어문논집』 제79호, 민족어문학회, 2017, 115-137면; 하영우, 「부사의 음운론적 감쇄 양상과 특징」, 『民族文化硏究』 제8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365-385면; 송인성・이성하, 「담화표지 발달에 있어서 운율의 역할: '글쎄'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17년 2월 21일 인용.
11) Rhee, Seongha, Op. cit., p.18 참조.

지의 형태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냥}이 '걍', '냥', '양'으로, {그러니까}가 '까'로, {이렇게}가 '케', '께', '게'로 축소되어 나타날 때는 이 단어들이 부사보다 담화표지로 실현되는 경우라고 하였다.[12] 동일한 자료로 부사의 음운 감쇄 현상을 분석한 하영우에서도 원형적 의미에서 벗어나 담화표지로 빈번히 쓰이는 부사류는 문법화의 동반 현상 중 하나인 음운 감쇄가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13]

〈표 3〉은 구어 자료에서 시대별 호출어 '이보-'류의 출현 빈도를 계량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보-'류는 청자대우법 어미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는데, 다른 형태에 비하여 '이봐'와 '이봐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F)는 '이보-'류의 여러 형태가 호출어로 실현된 사례이다.[14]

〈표 3〉 시대별 호출어 '이보-'류의 출현 빈도(회)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이보십시오	0	0	0	0	0	0	0	0	0	0
이보시오	0	0	0	0	1	0	0	0	0	1
이보	0	0	1	13	0	0	0	0	0	14
이보게	0	1	0	1	0	1	0	1	2	6
이봐라	0	0	0	0	0	0	0	0	0	0
이봐	0	1	6	21	29	17	11	10	13	108
이봐요	0	0	5	1	8	4	14	19	39	90
이보세요	0	0	0	0	0	1	0	0	0	1
총합	0	2	12	36	38	23	25	30	54	220

(F) ㄱ. 이보시오 김형 경아는 내가 길들여놓은 여자요. 〈1974_영화, 고향〉
ㄴ. 저 이보 사장이 부릅메 에? 〈1959_영화, 사장〉

12) 송인성, 앞의 글, 2017 참조. 서울코퍼스의 정보는 Yun, Weonhee et. al.,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말소리와 음성과학, Vol.7(2), 한국음성학회, 2015, pp.103-109 참조.
13) 하영우, 앞의 글, 381면 참조.
14) '이보-'류 중에서 '이보'는 〈여사장, 1959〉, 〈또순이, 1963〉의 영화 자료에서 총 4명의 화자가 14회 실현하였는데, 이 화자들은 모두 함경도 지역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보'는 함경도 지역 방언과 관련이 있는 말로 보이는데, 곽충구의 2007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 지역어 조사 보고서에서 함경도 출신 화자들의 자유 발화를 조사한 내용에 '이보'가 호출어, 호칭어로 쓰임이 나타난다.

ㄷ. 이보게 도석이 내려와. 〈1988_영화, 개그〉
ㄹ. 이봐 점네네 아 병을 봤으면 값을 내야지. 〈1961_영화, 지붕〉
ㅁ. 이봐요 총각 잔돈. 〈1994_TV드라마, 승부3부〉
ㅂ. 아 이보세요 아주머니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1980년대 _TV드라마, 반장2〉

현재 '이+보-'류의 호출어는 '이봐', '이봐요' 등과 같은 줄어든 형태뿐만 아니라 '이것/거 봐', '이것/거 봐요' 등과 같이 변화된 형태로도 호출어의 쓰임이 나타난다. 〈표 4〉는 구어 자료에서 '이것/거 보-'류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이고, (G)는 '이것/거 보-'류가 실현된 사례이다.

〈표 4〉 시대별 호출어 '이것/거 보-'류의 출현 빈도(회)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이것/거 보십시오	0	0	0	0	0	0	0	0	0	0
이것/거 보시오	0	0	0	1	3	1	0	0	0	5
이것/거 보오	1	0	0	0	0	0	0	0	0	1
이것/거 보게	0	0	0	0	0	0	0	0	0	0
이것/거 봐라	1	0	0	1	0	0	0	0	0	2
이것/거 봐	0	5	2	1	3	5	3	5	0	24
이것/거 봐요	1	0	0	0	0	2	1	4	0	8
이것/거 보세요	1	1	0	1	0	1	2	4	0	10
총합	4	6	2	4	6	9	6	13	0	50

(G) ㄱ. 이거 봐 아 너만 말 잘 들으면 말이다 용길이도 이제 끌러놓고 오래 간만에 우리 그래 우동 좀 사다 먹자꾸나 응? 〈1941_영화, 천사〉
ㄴ. 이것 봐요 자살하는 사람을 더 자극하면 어떡해요? 〈1988_영화, 칠수〉
ㄷ. 이것 보세요 저 얼른 감시가 없을 때 한 십 원만 돌려주세요. 〈1930 _유성기음반, 영화〉
ㄹ. 아이구 이거 보시오 우리 영자가 팔 하나 없는 게 흠이지. 〈1975_ 영화, 영자〉

'이보-'류와 함께 '이것/거 보-'류의 형태도 호출어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를) 보-'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것/거(를) 보-' 형태로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 '저(뎌)'와 함께 고대국어에서 근대국어까지 지시, 인칭 대명사

로 사용되는데 현대국어로 오면서 대명사로의 용법은 주로 문어에서 나타나고, 구어에서는 '이것'과 '그것'이 대명사의 기능을 담담하게 된다. 즉, 현대국어에서 '이'와 '그'는 [대용]의 의미가 약해지고 [지시]와 [한정]의 의미만 남아서 지시 대명사로서의 기능을 '것'이 결합한 '이것'과 '그것'에 넘겨준 것이다.[15]

20세기로 오면서 '이것/거 보-'류는 '이로 가리키는 대상을 보라'는 원형적 의미로 쓰이면서 이와 함께 동일한 기원형인 '이(를) 보-'에서 형성된 '이보-'류의 쓰임에 영향을 받아, 구어에서 담화적 기능도 자연스럽게 획득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보-'류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청자 대우법 어미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 것과 같이 '이것/거 보-'류도 이와 동일하게 실현되고 있다.

'이+보-'류는 구어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호출의 기능 외에도 다른 담화 기능이 나타난다. (Hㄱ)에서와 같이 '이+보-'류는 화자가 상대를 가볍게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기능이 있다. 상원은 민주의 언행에 대하여 '이거 봐'를 연달아 발화하면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 또한 (Hㄴ)에서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 화자가 가볍게 놀라고 감탄할 때도 '이+보-'류가 나타난다. 또순이라는 젊은 여성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려고 하자, 옆에 있는 남성이 '이것 봐라'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여성의 행동에 대해 가볍게 놀라고 감탄하고 있다.[16]

(H) ㄱ. 상원 지연이 엄마는 무슨 죄예요 어? 자기도 민망한지 그냥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는데 진짜 불쌍해 죽는 줄 알았네.
민주 그 기지배가 뭐가 불쌍해?
상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언제 봤다구 지지배야 지지배는.〈2007_TV드라마, 강남6부〉
ㄴ. 또순 머리에 일 테니까 이 한쪽만 들어주오.
남자 야- 이것 봐라.〈1963_영화, 또순〉

15) 박근영, 「'이', '그', '저(뎌)'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제2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72면 참조.
16) '이+보-'류의 가벼운 질책이나 비난(4회)은 감탄(1회) 기능은 자료에서 출현 빈도가 호출 기능(265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실현되었다.

〈표 5〉는 ‘이+보-’류가 호출어와 담화표지로서의 발달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이+보-’류는 ‘이(를) 보-’의 대명사와 동사의 구성에서 ‘이봐’, ‘이보세요’ 등과 같이 축약된 형태와 ‘이것/거 봐’, ‘이것/거 보세요’와 같이 변화된 형태가 함께 실현되고 청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청자 대우법 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보-’류는 ‘이로 가리키는 대상을 봐’라는 원형적 의미에서 발달하여 호출어 또는 담화표지로 사용되는데 담화 기능은 주의 환기, 가벼운 비난과 감탄으로 나타난다.

〈표 5〉 ‘이+보-’류의 호출어/담화표지로의 발달 과정

	원형		변화형
형태	‘이(를) 보-’		‘이바’ ⇨ ‘이봐, 이봐요, 이보세요’ 등, ‘이것/거 봐’, ‘이것/거 보세요’ 등
문법	대명사와 동사의 구성	⇨	호출어 / 담화표지
의미・기능	“이로 가리키는 대상을 봐”		“말을 시작한다 내 말을 들어봐.”(주의환기) “이럴 줄 알았어.”(비난) “대단하다.”(감탄)

4.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양상의 변화

호출어는 현대국어 안에서 사용 양상의 변화를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여+보-’ 계열의 단어 가운데 ‘여보’의 경우 20세기 초에는 호출어와 부부 호칭어로 모두 사용되다가 호출어로의 쓰임은 20세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약화되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부부 호칭어로만 쓰인다. ‘여보세요’도 20세기 초기부터 대면 상황에서 호출어로 사용되는데, 전화기가 보편화되는 80년대 이후부터는 대면 상황에서 호출어의 사용이 많이 줄고 전화를 할 때 시작하는 말로 기능 전이가 이루어진다.[17]

이처럼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거나 소

17)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연구』 제56호,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참조.

멸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보-'류와 유사한 의미와 형태를 지닌 '이+보-'류에는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구어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보-'류는 앞서 〈표 3〉과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30년대부터 2010년대 자료에서 '이보-'형과 '이것/거 보-'형 모두 호출어로 쓰임이 나타나는데, 화자는 특정 발화 상황에서 듣는 이에게 말을 건네고 자신의 발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보-'류를 호출어로 사용한다.

이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호출어 '이+보-'류가 실현되는 발화 목적과 상황을 살펴본 결과 요청, 제안, 질문, 명령, 진술, 걱정, 문제 제기, 경고 등과 같은 발화 목적 및 상황이 나타났다. 〈표 6〉은 '이+보-'류가 실현되는 발화 목적 및 상황의 출현 빈도를 제시한 것이고 (I)는 각 발화 목적 및 상황에서 '이+보-'류가 실현된 사례이다.

〈표 6〉 '이+보-'류가 실현된 발화 목적 및 상황의 출현 빈도(회)

발화 목적 및 상황	요청	제안	질문	명령	진술	걱정	문제 제기	경고	총합
출현 빈도	32	11	20	16	26	6	147	6	265

(I) ㄱ. [요청] 이봐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1961_영화, 지붕〉
ㄴ. [제안] 이봐 니들 내 친구로 해줄까? 〈1978_만화, 코난〉
ㄷ. [질문] 이봐 그 이름 뭐랬지? 〈1961_영화, 지붕〉
ㄹ. [명령] 이봐 하니 이리 와 봐라. 〈1980년대_만화, 하니1〉
ㅁ. [진술] 이봐 자네 신문에 났네. 〈1985_영화, 깊밤〉
ㅂ. [걱정] 이봐 다치지 않았소? 〈1941_영화, 천사〉
ㅅ. [문제 제기] 이봐요 차강심씨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왜 자꾸 말을 놔요! 〈2014_TV드라마, 가족〉
ㅇ. [경고] 이봐 정신 채려. 눈은 모양으로 달고 다니나? 〈1959_영화, 청춘〉

(Iㄱ-ㅂ)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해서 '이+보

-’류를 사용하여 청자를 부르고 발화를 시작한다. 이 경우 화자는 청자에게 주로 부탁이나 요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손한 태도나 우호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반면에 (ㅣㅅ-ㅇ)에서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제기, 경고를 하기 위해 호출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화자가 무례한 태도나 불만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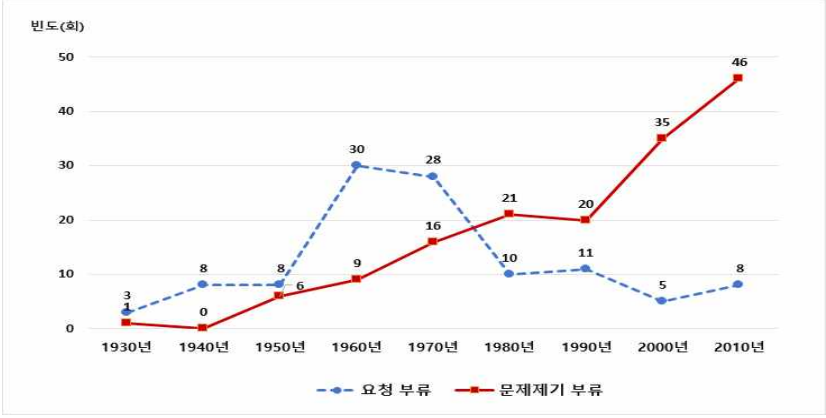
이처럼 호출어 ‘이+보-’류가 실현될 때는 여러 발화 목적 및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전과 달리 근래에 올수록 호출어 ‘이+보-’류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문제 제기, 경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 보인다. 즉, 화자는 청자의 언행이나 청자와 관련된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청자에게 경고나 위협을 하기 위해 ‘이+보-’류의 호출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보-’류가 실현된 발화 목적 및 상황을 요청 부류(요청, 제안, 질문, 명령, 진술, 걱정)와 문제 제기 부류(문제 제기, 경고)로 구분하고, 각 부류가 시대별로 출현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7〉, 〈그림 1〉과 같다.

〈표 7〉과 〈그림 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대국어 내에서 발화 목적 및 상황에 따른 ‘이+보-’류의 사용의 변화가 확인된다. 먼저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문제 제기, 경고의 발화 목적 및 상황에서 ‘이+보-’류의 사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요청, 제안, 질문 등의 경우에서 ‘이+보-’류는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사용이 증가하고 고빈도로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해 ‘이+보-’류를 사용하는 빈도가 항의, 경고를 할 때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항의나 경고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도가 요청, 제안 등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근래로 올수록 차이가 점점 크게 나타난다.

〈표 7〉 시대별 '요청 부류'와 '문제 제기 부류'의 출현 빈도(회)

연도 / 담화 상황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총합
요청 부류	3	8	8	30	28	10	11	5	8	111
문제 제기 부류	1	0	6	9	16	21	20	35	46	154
총합	4	8	14	39	44	31	31	40	54	265



〈그림 1〉 시대별 '요청 부류'와 '문제 제기 부류'의 실현 차이(회)

이 결과를 통해, 현대국어에서 발화 목적과 상황에 따라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호출어 '이+보-'류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상대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한 사용이 점점 감소한다. 반면에 1980년대 이후에 상대에게 문제 제기, 경고를 하기 위한 사용이 점점 증가함으로써 '이+보-'류를 사용하는 발화 목적과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호출어 '이+보-'류에 문제 제기, 경고의 의미가 이전보다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 경우 '이+보-'류가 호출 기능보다 '이+보-'류의 말 자체에 문제 제기나 경고 기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여 문제 제기나 경고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ㄱ)에서는 민주가 자신이 타고 있는 차에 발길질을 하고 듣기 거북한 호칭과 반말을 하는 무혁에게 화를 내며 '이봐요', '이봐'를 실현한다. (ㄴ)은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당당한 상대방의 말을 듣고 화자가 분노를 일으키며 '이봐요' 사용한다. (J)의 사례는 화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이+보-'류의 말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차에 발길질을 하는 상대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전하고, 일부러 아이스크림을 묻히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대에게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봐요'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이+보-'류의 말에 상대방을 호출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항의나 경고의 기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J) ㄱ. 민주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리며) 무슨 일이시죠?
무혁 (차에 발길질)
민주 이봐요!
무혁 아줌마 내려!
민주 아줌마?
무혁 너 눈 얻다 두구 운전해?
민주 이봐! 아저씨! 〈2004_TV드라마, 미사4부〉
ㄴ. 은설 (아이스크림을 나윤의 옷에 묻힌다.)
나윤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설 죄송한데요 전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먼저 일부러 그랬으니까요.
나윤 이봐요!
은설 네 보고 있어요.
나윤 분명히 그쪽이 먼저 나 치고 갔어요. 여기 보이죠 그죠? 〈2011_TV드라마, 보스4부〉

'이+보-'류가 요청, 제안, 질문 등의 상황에서 사용의 감소를 보이는 것은 큰 관점에서 볼 때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기능과 실현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보-'류는 '여보', '여보세요'와 같은 '여보-'계열의 말이 근래에 들어 대면 상황에서 호출어의 기능이 거의 없어진 것과 같이 현재 대면 상황에서 호출어로서의 쓰임 자체가 빈번하지 않다. 또한 호출어가 실현되는 발화 목적과 상황이 상대에게 항의, 경고 등을 하기 위한 상황

에서는 쓰임이 존재하지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한 상황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류의 말은 호출어로서의 사용 범위가 20세기 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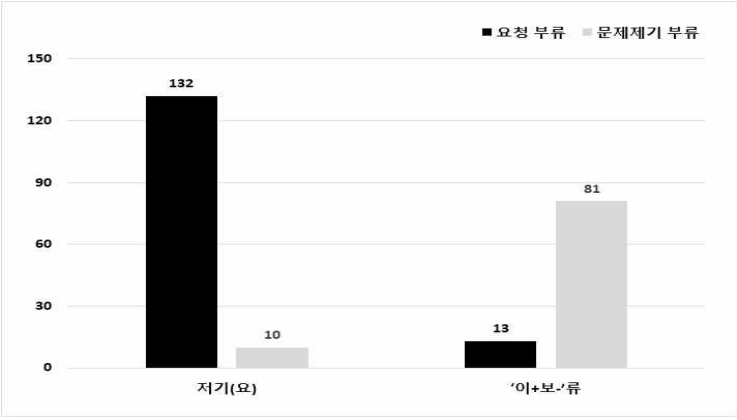
이 현상의 원인은 동시대에 동일 기능을 하는 다른 어휘의 쓰임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휘의 사용이 축소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저기(요)'와 같은 말이 대면 상황에서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보-'류와 '여보-'류의 말은 대면 상황에서 호출어로 쓰임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 현상은 양영희·송경안에서 현재 대명사 '당신'이 부부간에 통용되는 지칭어로 기능이 한정된 이유를 대명사 '자기'가 2인칭 대명사로 활발히 쓰이면서 '당신'의 사용 영역을 제한하고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분석한 것과 유사하다.[18] (K)는 '저기(요)'가 요청(Kㄱ), 제안(Kㄴ), 질문(Kㄷ)을 하는 상황에서 실현된 사례이다.

(K) ㄱ. 정숙 저기. 선생님 이 두 사람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6_TV드라마, 순애3부〉
ㄴ. 나윤 저기요.
은설 왜요?
나윤 술 마실 줄 알아요?
은설 알죠.
나윤 한잔할래요? 〈2011_TV드라마, 보스8부〉
ㄷ. 강심 저기. 상무님 근데 정말 여기로 가는 거 맞습니까?
태주 네비에 이쪽이 지름길이라고 나왔었잖아요. 〈2014_TV드라마, 가족8부〉

호출어 '저기(요)'의 사용과 관련된 논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최근 2000년대와 2010년대 자료에 나타난 '저기(요)'와 '이+보-'류와의 발화 목적 및 상황에 따른 실현된 양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18) 양영희・송경안, 「'당신'의 변화 양상 고」, 『언어과학연구』 제49호, 언어과학회, 2009, 198-199면 참조.

〈그림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기(요)'는 호출어로 전체 142회 출현 빈도를 보이는데 요청 부류는 132회, 문제 제기 부류는 10회가 실현된다. 반면에 '이+보'류의 경우 전체 94회의 출현 빈도에서 요청 부류 13회, 문제 제기 부류는 81회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최근 '이+보'류는 문제 제기, 경고를 위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고, '저기(요)'는 요청, 제안, 질문 등을 위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21세기 자료에 나타난 '저기(요)'와 '이+보'류의 발화 목적과 상황의 실현 차이(회)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최근 들어 호출어 '이+보-'류는 이전과 달리 요청, 제안, 질문 등의 상황에서는 사용이 감소하고 문제 제기, 경고의 상황에서는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출어 '이+보-'류에 문제 제기, 경고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요청, 제안, 질문 등의 상황에서 사용의 감소로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과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최근 호출어 '저기(요)'가 대면 상황에서 사용이 증가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5. 결론

이 연구는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는 '이+보-'류를 대상으로 호출어로서의 발달 과정을 살피고, 현대국어 내에서 사용의 변화 양상을 발화 목적 및 상황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보-'류는 '여+보-'류가 '여기(를) 보-'에서 발달한 것과 같이, '이로 가리키는 대상을 보아'의 의미를 지닌 '이(를) 보-'에서 발달하여 현대국어에서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다. 축약형인 '이봐', '이봐요'의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변화형인 '이것/거 보-'도 호출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형태는 청자 대우법의 어미의 따라서 여러 형태가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이+보-'류는 호출어의 기능을 하는데,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 제안, 질문 등을 하는 상황과 문제 제기, 경고 등을 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국어에서 '이+보-'류가 발화 목적 및 상황에 따라 실현되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문제 제기나 경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보-'류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였다. 반면에 요청, 제안 등을 하는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은 1970년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이+보-'류의 사용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호출어 '이+보-'류에 문제 제기, 경고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호출어 '이+보-'류의 사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호출어 '저기(요)'가 요청, 제안, 질문 등의 상황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호칭어, 지칭어에 비해 관심이 부족하였던 호출어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대국어 호출어 가운데 '이+보-'류의 발달 과정과 현대국어 내에서 발화 목적과 상황에서의 사용 변화를 새롭게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와 같은 국어의 호출어 연구를 통해 국어 호출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국어 부름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해 본다.

▮ 부록

번호	제목	유형	약어
1	김복진 동화 구연(1934)	동화구연	구연
2	조선어 독본(1935)	음성교재	독본
3	유성기 연극 음반(1930년대)	유성기음반	연극
4	유성기 영화 음반(1930년대)	유성기음반	영화
5	미몽(1936)	영화	미몽
6	심청전(1937)	영화	심청
7	군용열차(1938)	영화	군용
8	어화(1939)	영화	어화
9	수업료(9140)	영화	수업
10	반도의 봄(1941)	영화	반도
11	지원병(1941)	영화	지원
12	집 없는 천사(1941)	영화	천사
13	자유만세(1946)	영화	만세
14	독립전야(1948)	영화	독립
15	마음의 고향(1949)	영화	마음
16	운명의 손(1954)	영화	운명
17	미망인(1955)	영화	미망
18	서울의 휴일(1956)	영화	서울
19	자유부인(1956)	영화	부인
20	그대와 영원히(1958)	영화	그대
21	돈(1958)	영화	돈
22	자유결혼(1958)	영화	자유
23	여사장(1959)	영화	사장
24	청춘쌍곡선(1956)	영화	청춘
25	자매의 화원(1959)	영화	자매
26	태평양 전쟁(1967)	라디오드라마	전쟁
27	향토무대(1968)	라디오드라마	향토
28	여명 80년(1963)	라디오드라마	여명
29	우주의 왕자 황금철인(1968)	만화	우주
30	서울의 지붕 밑(1961)	영화	지붕
31	또순이(1963)	영화	또순
32	검은 머리(1964)	영화	머리
33	맨발의 청춘(1964)	영화	맨발
34	일월(1967)	영화	일월
35	여로(1972)	TV드라마	여로
36	수사반장(1970년대)	TV드라마	반장1

37	미래소년 코난(1978)	만화	코난
38	빨강머리 앤(1979)	만화	빨강
39	이상한 나라의 폴(1976)	만화	이상
40	인간 사표를 써라(1971)	영화	인간
41	별들의 고향(1974)	영화	고향
42	바보들의 행진(1975)	영화	행진
43	영자의 전성시대(1975)	영화	영자
44	족보(1978)	영화	족보
45	수사반장(1980년대)	TV드라마	반장2
46	전원일기(1980년대)	TV드라마	전원
47	초원에 뜨는 별(1985)	TV드라마	초원
48	사랑이 꽃피는 나무(1987)	TV드라마	사랑
49	달려라 하니(1988)	만화	하니1
50	천방지축 하니(1989)	만화	하니2
51	아기 공룡 둘리(1987)	만화	둘리
52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영화	난장
53	깊고 푸른 밤(1985)	영화	깊밤
54	겨울 나그네(1986)	영화	겨울
55	개그맨(1988)	영화	개그
56	칠수와 만수(1988)	영화	칠수
57	파일럿(1993)	TV드라마	파일
58	마지막 승부(1994)	TV드라마	승부
59	바람의 아들(1995)	TV드라마	바람
60	창공(1995)	TV드라마	창공
61	영심이(1990)	만화	영심
62	아래층 여자와 위층 남자(1992)	영화	아래
63	결혼 이야기(1992)	영화	결혼
64	투캅스(1993)	영화	투캅
65	접속(1997)	영화	접속
66	미안하다 사랑한다(2004)	TV드라마	미사
67	프라하의 연인(2005)	TV드라마	연인
68	돌아와요 순애씨(2006)	TV드라마	순애
69	어느 멋진 날(2006)	TV드라마	멋진
70	강남 엄마 따라잡기(2007)	TV드라마	강남
71	보스를 지켜라(2011)	TV드라마	보스
72	연애 말고 결혼(2014)	TV드라마	연애
73	가족끼리 왜 이래(2014)	TV드라마	가족
74	킬미힐미(2015)	TV드라마	힐미

▮ 참고문헌

곽충구,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국립국어원, 2007.

구현정・이성하, 「조건 표지에서 문장종결 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제8권 1호, 담화와 인지학회, 2001, 1-19면.

박근영, 「'이', '그', '저(뎌)'의 의미 기능 변화」, 『언어와 문화』 제2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6, 65-96면.

송인성, 「20세기 구어 자료에 나타나는 '여보'류의 사용 양상 변화」, 『우리어문연구』 제56호, 우리어문학회, 2016, 203-233면.

_____, 「부사 기원 담화표지의 형태와 운율 특성」, 『어문논집』 제79호, 민족어문학회, 2017, 115-137면.

송인성・이성하, 「담화표지 발달에 있어서 운율의 역할: '글쎄'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어과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집, 2017년 2월 21일.

양영희・송경안, 「'당신'의 변화 양상 고」, 『언어과학연구』 제49호, 언어과학회, 2009, 183-202면.

왕한석 외, 『한국 사회와 호칭어』, 역락, 2005.

하영우, 「부사의 음운론적 감쇄 양상과 특징」, 『民族文化硏究』 제87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365-385면.

홍윤표,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2009.

황병순, 「국어 부름말의 유형 연구」, 『어문학』 제137호, 한국어문학회, 2017, 227-254면.

Austin, J. L.,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1992.

Searle, John R., 이건원 역, 『언어 행위』, 한신문화사, 1987.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Clarendon Press, 1962.

Bybee, Joan. L., William P. and Revere D. P.,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Rhee, Seongha, "On the emergence of Korean markers of agreement", *Journal of Pragmatics*, Vol.83, 2015, pp.10-26.

Searle, John R.,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Yun, Weonhee et. al.,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말소리와 음성과학, Vol.7(2), 한국음성학회, 2015, pp.103-109.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use in the modern Korean 'I+bo-' class

Song, In-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bo-' class, which is used as a summonses, and to clarify the changes in the usage of the 'I+bo-' class in the modern Korean. Summonses is a frequently used language, and there are various types in modern Korean. The 'I+bo-' class is predicted to have developed from 'I (leul) bo-' just as the 'Yeo+bo-' class developed in 'Yeogi (leul) bo-'. Currently, the abbreviated forms of 'I-bwa-' and 'I-bwayo-' are mainly used, and the transformed forms 'I-geos/geo bo-' is also used as summonses. These two forms appear in several forms depending on the binding pattern of Hearer-honorification endings. 'I+bo-' is used in various discourse situations, and in recent years, the use of 'I+bo-' in discourse situations such as protests and warnings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requests, suggestions, questions, etc., showed a decreasing trend from the 1970s to 1980s. Based on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meaning of protest and warning is strengthened in the 'I+bo-', and the entire scope of use of 'I+bo-' is shrinking through the reduction of use in situations such as requests and suggestions. This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the recent use of the 'Jeogi (yo)' frequently in discourse situations such as requests, suggestions, and questions.

Keywords: spoken language corpus, I-geos bwa, I-geos bwayo, I-bwa, I-bwayo, Jeogi, Jeogiyo, morern Korean, summonses, forms of address.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

* Lecturer, College of Kyedang General Education, Sangmyung Univ.